

# 진도군 100억대 국고환수 위기 넘겼다

## 중앙행정심판위, 급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수용

급수선 건조 명목의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전용해 환수조치 위기에 놓인 진도군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진도군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가 인용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진도군 주장을 수용하는 인용 조치를 내렸다.

군은 그동안 급수선 예산을 여객선으로 사용한

것은 섬 주민들의 이동권·생존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진도군 관계자는 "취소 청구 인용은 진도군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다"면서 "인용 결정 내용을 담은 재결서가 익산청에 도달하면 이에 상응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도군은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교통부 도서개발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원을 투입, 2018년 진도 본섬과 가사도를 오가는 160여 차도선을 건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부적정'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현장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진도군 편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예산 27억원을 포함해 제제 보조금 최대 108억원 환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군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망토 380개를 제작,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전달했다.

# 목포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다음달 개장

## 목재 놀이터·체험장 등 갖춰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생겼다.

목포시는 최근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갖고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는 낡은 기존의 난전시관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총사업비 30억원(시비 6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856㎡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했다.

체험장은 친환경 목재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유아목재놀이터, 유아와 초등학교 목공체험실(2실), 성인반 목공체험실(1실), 목공기계실 등 다양한 연령층이 목재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목공지도사의 지도로 독서대, 우드스피커, 빵도마 등 목공예품을 만드는 목



공체험 프로그램은 체험비와 재료비가 무료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목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의 편의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 청소년, 일반인 등 대상별 수준과 능력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목제품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 해남군 초등학교 19곳 안전망토 380개 전달

## 반사 기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해남군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망토 380개를 제작, 지역 초등학교 19개소에 전달했다.

양쪽 어깨 끈에 부착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망토는 방수와 빛 반사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 비 올 때뿐 아니라 어두워도 쉽게 눈에 띄게 해 언제든지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망토에는 속도제한 30 표시가 새겨져 있어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유도한다.

안전 망토는 지역 초등학교 1학년 380명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만으로는 상시적인 어린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매년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학기에는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지역 초등학교(2589명)와 유치원(471명)에 배부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린이와 늘 함께 있는 교통 안전시설을 마련하여 해남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안전 망토가 보이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 유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1004굴' 신세계 푸드 납품 큰 인기

## 일반굴 10배 가격에 거래

신안군 청정 갯벌에서 자란 친환경 '신안1004굴' <사진>이 신세계그룹 식품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에 출하돼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대전점에 운영 중인 레스토랑 '베키아에누보'에 고급 메뉴로 제공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굴은 민선 7기 들어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2년여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봤다.

군은 2019년부터 개체 굴 연구사업을 통해 개체 굴 종자 생산에서 출하까지 양식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7개소의 시범양식장을 운영 중이다.

신안 굴은 갯벌에서 노출식으로 양식돼 맛과 풍미, 식감이 뛰어나고 생식소가 발달하지 않아 연중 이용이 가능하며 여름철에도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일반굴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거래돼 가격 경쟁력이 높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강점 등 수확식 굴과 차별화로 양식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1004섬'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우람 신안군수는 "신안 굴이 신세계푸드에서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출하하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 프리미엄 개체굴 생산과 유통의 메카로 비상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일본, 홍콩과 유럽지역 등에 대한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완도 금일·생일도 등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지난해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이 완료된 1단계 구간 중 한 코스. <완도군 제공>

완도 금일, 생일도 등에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가 조성된다.

완도군이 타지역과 차별화된 완도만의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까지 18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지난해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에 58.6km를 조성했다.

올해는 금일읍, 생일면, 청산면, 금당면에 113.5km를 조성하고 있다.

내년에는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에 48.1km를 조성해 총 220.2km의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금일 명사십리 해변, 생일 금곡 해변, 청산 슬로길, 금당팔경 등 완도 섬만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를 중심으로 조성한다.

특히 안전, 편의시설을 보완해 이용객들에게 완도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트레킹 코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